



홍콩의 전자, 부품산업

- KOTRA -

1. 시장개요

홍콩 전자산업은 부품과 완제품 모두 높은 경쟁우위를 보유하고 있다. 전자제품 수출은 2000년 홍콩의 전체 수출에서 약 35%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은 산업분야로 계산기, 라디오, 전화는 세계 제1위 수출품목이기도 하다. 전자업종 종사자도 10만명을 초과해 노동시장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생산 형태로는 전통적인 OEM에서 최근 ODM 방식으로의 전환이 늘고 있으며, OEM 발주업체들과의 신상품 공동개발도 활발하다. 몇몇 대형 제조업체의 경우 자체 브랜드 육성전략에 따라 시장내 인지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

홍콩의 전자산업은 여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협소한 자체 소비시장보다는 대외교역 의존도가 높다. 금년들어 전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7월까지 홍콩의 전자제품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3%선의 증가에 그쳐 작년도 28% 증가세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주요 시장별로는 미국, 유럽에 대한 수출이 각각 11%, 7% 감소세에 있다. 다만 중국에 대한 반제품, 완제품 수출실적은 양호해 23%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중국 내부 수요증가와 다국적 기업을 위

시한 세계 각국 기업들의 대중투자의 증가에 따른 부품수요 증가에 기인한다.

<홍콩의 전자산업 일람>

구분	제조업	무역업
업체수	797개사 (2001. 3월 기준)	9,894개사 (2000년 기준)
고용 규모	24,480명 (2001. 3월 기준)	71,579명 (2000년 기준)

- * 자료원 : 홍콩통계처
- * 업체수는 홍콩소재기업만 집계

2. 생산 동향

홍콩 전자, 부품업체들은 노동집약적인 저가품 생산라인을 대부분 중국으로 이전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홍콩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은 업태변경을 통해 무역업체 위주로 변했지만 이중 80% 가량은 대부분 중국에 생산법인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중국에 생산법인을 두고 있는 홍콩기업은 홍콩 사무소를 주로 제품디자인이나 경영, 금융, 마케팅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다만 IC 패키징, 멀티레이어 PCB 등 자본집약적인 고부가가치제품 생

산라인은 홍콩에 두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홍콩은 제조공정에 필요한 IC, Dice와 같은 중요 부품은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데, 자유무역항으로서의 장점과 잘 발달된 통신인프라는 홍콩이 각국으로부터 부품을 조달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최근들어 PCB, 플라스틱, 메탈 등 기본적인 부품소재는 대부분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다.

홍콩의 전자산업 발전은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처에서 비롯된다. 짧아진 제품주기와 다품종 소량주문, 신속한 납기일 등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으며, 에너지절약과 리사이클링 포장 사용 등 환경친화적인 그린마케팅에도 적극적이어서 ISO 9000, ISO14000 기준을 만족시키는 회사들이 대다수이다.

홍콩 전자업체들은 여전히 세계 유명 상품의 OEM과 ODM(origin design manufacture)위주의 공급을 주로 하고 있으나, 자체 디자인과 하이테크 제품개발 등 막대한 투자 비용을 들여 독자 브랜드를 개발하려는 연구도 계속하고 있다.

3. 수출입 동향

최근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중국의 경쟁력 강화와 WTO가입 등의 요인으로 홍콩 전자산업은 도전과 기회가 병존하고 있으며, 변화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Truly, V-Tech, Group Sense, Venterer, Gp, SMC 등 기업은 이미 OEM 방식 대신 자사브랜드를 부착한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부품, 반제품시장의 경우 대부분의 업체들이 미국, 유럽, 일본등지의 유명 전자업체들로부터 주문자 요구에 의해 컴퓨터 부품, PCB, LCD 등 제품을 생산, 납품하고 있다. 표준화된 부품류는 주로 중개무역업체를 통해 대량으로 해외시장에

수출되고 있다.

홍콩은 자체수출 이외에도 중국산은 물론 일본, 대만, 한국 등 전자강국들의 제품들을 세계 각지로 재수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홍콩에 부품조달기지를 설치해 유통, 판매까지 전담하는 경우가 많다.

전자제품 수출중 완제품은 4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로 중저가 비디오레코더, CD워크맨, HIFI 컴포넌트, DVD Player 등 AV기기와 전자완구, 게임기 등 완구류 그리고 유무선통신기기의 비중이 높다.

한편 레지스터,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스위치, 트랜스포머, LCD, CRT, PCB등 컴퓨터, 통신용부품과 AV부품, 사무용기기부품 등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제품 및 부품은 중국 생산기지에 대한 조달수요가 상당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홍콩의 전자제품 수출은 최근 완제품보다 부품분야 강세가 두드러진다. 이는 중국내 생산기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기인한다.

이로 인해 최근 세계 경기침체와 미국 테러사태 등 열악한 외부환경 가운데 미국과 EU에 대한 완제품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중국에 대한 부품소재 수출은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고 있다.

금년 1~7월까지 선진시장 수요위축으로 AV기기, 전자완구류, 시계 등의 수출은 작년동기 대비 각각 6%, 12%, 6% 감소했다. IT, 통신장비 및 부품 수출은 중국등 일부시장의 호황으로 10%대의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시장 수출실적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AV기기 등 대부분의 수출대상 제품이 전반적으로 감소세에 있고 특히 통신기기 수출은 1~7월까지 전년대비 23% 감소했다.

유럽시장에 대한 수출은 유로화 약세로 7% 감소세에 있다.



국별 Report

<주요국별 수입통계>

(단위 : US\$ 백만)

순위	대상국	2000년	2001(1~7월)
1	중국	28,173	14,480
2	일본	11,463	6,142
3	대만	7,404	3,982
4	미국	6,264	3,533
5	싱가포르	5,769	3,403
6	한국	4,230	2,522
7	말레이시아	3,102	1,932
8	필리핀	1,564	892
9	태국	1,052	585
10	영국	1,062	576
총 수입		74,807	2,644

<주요국별 수출통계>

(단위 : US\$ 백만)

순위	대상국	2000년	2001(1~7월)
1	중국	22,129	14,369
2	미국	15,294	7,042
3	일본	3,983	2,389
4	대만	2,950	1,533
5	독일	3,044	1,420
6	싱가포르	3,073	1,377
7	한국	2,475	1,214
8	영국	2,773	1,157
9	네덜란드	1,410	975
10	프랑스	1,509	665
총 수출		70,896	38,533

<제품 종류별 수출통계>

구분	1999년		2000년		2001(1~7월)	
	점유율	증감율	점유율	증감율	점유율	증감율
완제품	48	-2	42	+13	40	-1
반제품 및 부품	52	+13	58	+41	60	+5

<세부 품목별 총 수출>

구분	1999년		2000년		2001(1~7월)	
	점유율	증감율	점유율	증감율	점유율	증감율
AV기기, 부품	22	-2	22	+30	20	-6
IT장비, 부품	20	+5	19	+21	21	+11
ICMicro-assemblies	12	+26	15	+57	16	+10
통신기기, 부품	8	-1	8	+21	8	+9
전자완구 게임기	8	-4	7	+6	5	-12
전자시계	7	-4	5	+2	5	-6

전통 전자제품이 모두 약세에 있으나 유럽 통신시장 수요증가로 통신기기 수출은 미국과 달리 28% 증가했다.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은 부품, 반제품 위주로 1~7월까지 23% 증가했다. 이는 수출가공형 생산기지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중국시장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4. 최근 제품 트렌드 및 향후 전망

홍콩은 한국에 이은 아시아 제2위 초고속통신망 보급지역으로 각 가정별 인터넷 보급의 영향으로 IT, 멀티미디어 관련제품이 일정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WAP 핸드폰과 MP3 Player는 인기

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소호(small office home office)용 통신장비에 대한 수요도 적지 않다.

주목할만한 분야는 무선기기 분야이다. 블루투스(근거리무선통신기술)를 적용한 휴대폰, 노트북, 전자수첩 등이 새로운 통신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블루투스를 적용한 PDA나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3세대 휴대폰 등 차세대 제품들의 시장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B2B, B2C등 전자상거래의 발전속도로 미루어 보아 대부분의 전자제조업체들의 Web 기반화가 향후 수년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네트워크 접속장비 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선통신 이외에 초고속통신 수요증가로 인해 전통적인 유선 광대역 통신 접속기기, 부품의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대중 전자제품을 종전의 Cassette나 VCR, VCD Player등 전통상품이 서서히 MD Recorder, DV Camcorder, DVD Player 등 차세대 제품으로 급속히 대체되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특히 DVD 보급의 확대로 스피커, 리시버, 디코더 등 홈시어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DVD-AUDIO, SACD 등 차세대 음향포맷의 개발에 맞춰 관련 신제품 출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미국, 일본 등지에서 디지털 방송이 본격 시작단계에 진입한 가운데 미국은 2002년 분방송, 2006년 아날로그방송 중단을 계획중이며, 유럽의

경우 2006~2010년 사이에 디지털방송이 계획되고 있어 디지털방송기기, 부품시장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다. 이로인해 고선명 디지털TV 수상기는 물론 셋톱박스과 5.1채널에 대응하는 고급 AV기기가 가시적인 수요 창출 품목으로 꼽히고 있다.

전자완구와 게임종류는 교육과 학습분야에서 여전히 인기를 얻고 있다.

전자시계의 경우 음성 알람과 달력, 전자나침반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상품이 지속적으로 호응을 받고 있다.

9.11 테러사태의 영향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지만, 미국바이어들로부터 주문량 급감이나 취소 등의 GUSKD은 아직껏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수개월동안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하리라는 분석 때문에 대부분의 바이어들은 부품재고 및 주문량 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적인 IT거품 퇴조에도 불구하고 홍콩은 중국이라는 내수시장을 배후에 두고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중국의 WTO가입과 정보기술 협정(ITA) 참여로 2003년까지 IT제품 관세철폐와 2005년까지 기타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예정되어 있어 긍정적 요인으로 기대되며, 중국의 통신 및 인터넷 인프라 확충에 따라 선진시장 수요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시장전망은 그다지 어둡지 않은 편이다.

